

# ‘춘향’ 대표 콘텐츠 남원에서 만난다

제94회 남원춘향제 오늘 개막... 16일까지 ‘춘향, 컬러에(COLOR愛) 반하다’ 주제 개최

남원시와 춘향제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제 94회 춘향제를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일간 ‘춘향, 컬러에(COLOR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광한루원 일대, 예무원 특설무대, 요천둔지 등에서 펼쳐며, 개막식은 10일 저녁 7시 개최한다.

올 춘향제에서는 ‘춘향’을 기반으로 대표 콘텐츠를 포함, 7일간 40여개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 등을 선사할 예정이며, 메인 무대에서는 개막공연, 춘향선발대회, 춘향제왕, 하이세븐(High7)공연 등을, 예무원 특설무대에서는 한국과 세계각국의 전통음악 등이 펼쳐진다.

개막식에는 남원시립국악단과 남원시립예술단 개막 축하공연과 장문정, 이하이, 경서예진 등이 참여한 ‘춘향, 사랑빛 콘서트’로 광파대를 울리고, 유인촌 장관, 김관영 도지사, 이용호 국회의원, 김문덕 민주당 사무총장, 오기웅 차관, 전평기 시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핀란드 대사, 카자흐스탄 대사, 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춘향선발대회가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확대해 5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메인 특설무대에서 본선 진출자 32명(국내 27



제94회 남원춘향제 포스터

명, 국외 5명) 경연회를 펼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5.11~12)와 공군 특수 비행팀이 선사하는 블랙이글스 에어쇼(5.11)와 남원시내 한복관에서 춘향전 명장면을 연출해 펼쳐지는 대규모 발광난장 대동길놀이(5.11~12)가 진행되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춘향전의 등장 인물인 춘향, 이몽룡, 방자, 향단 등으로 변신할 수 있는 체험 행사 ‘춘향무도회’ (5.10-16)도 7일간 계속된다.(대여비;유료)

남원시는 지역축제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바가지요금, 위생, 맛과 서비스를 잡기 위해 백종원 디분코리아와 협업하며 메뉴 개발에 이어 가격, 운영 등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강화한 먹거리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먹거리 존에서는 막걸리 축제와 함께 춘향난장, 커피크닉존, 푸드트러존을 운영해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막걸리에도 퓨전요리 및 커피, 음료 등으로 남원춘향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 춘향제는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축제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원년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치러지는 만큼 꼭 방문해 춘향의 진표들을 남원에서 발견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버추얼 캐릭터로 태권도원 홍보

‘도랑·도진’ 캐릭터 3월부터 운영... 조회수 13만4000회 돌파

“제가 찾던 태권도원 예약 방법 여기 있네요”, “목소리가 매우 같네요. 태권도원 버추얼 신기하네요.”라는 댓글과 함께 “쉽고 자세히 알려줘서 좋네요. 버추얼이 설명해 주는 게 신기하고 영상만 나올 때보다 좋네요.”라는 글이 달렸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원 홍보를 위해 ‘도랑(여성)’과 ‘도진(남성)’을 모델로 한 버추얼 캐릭터를 개발, 3월부터 태권도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랑과 도진은 태권도의 ‘도’와 태권도원 캐릭터 중 ‘태 담’(호랑이)과 ‘진 진’(진돗개)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소개 콘텐츠를 시작으로 ‘태권도원 예약 방법’, 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T1 경기장’ 안내 등 현재까지 6편을 제작, 업로드했다.

태권도와 태권도원 홍보 목적 콘텐츠뿐 아니라, 태권도원 이용 고객들이 다수 제기하는 질문 사항인 ‘대관 예약 방법’ 등을 버추얼 캐릭터가 단계별로 시연하며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 콘텐츠를 제작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버추얼 캐릭터 개발과 운영은 예산 투입 없이 태권도진흥재단 직원들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목소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있는 김진



‘도진’ 캐릭터

휘 주임과 도진 목소리의 남재훈 주임, 도랑 목소리의 김명혜 주임은 입사 2년 차 이내의 직원들로 태권도원 홍보를 위해 젊은 감각으로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태권도와 태권도원 소식을 알리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DM과 댓글 등을 통해 생생한 소문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원 버추얼 캐릭터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태권도를 흥미롭게 전달하고 태권도원 이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제작에 있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내용과 구성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진행

백제왕궁박물관이 왕궁리유적 등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애착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 ‘제14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백제왕궁박물관 내부를 포함한 외부 광장, 왕궁리유적 일원에서 진행된다. 그림 도구는 참여자가 준비해야 하며, 도화지는 박물관에서 제공한다.

주제는 ‘익산의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추억·상상화’이고, 유치부·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와 초등고교 고학년부(4~6학년)로 부문이 나뉜다.

대회 당일에는 페이스페인팅, 전통전연염색, 네잎클로버 고리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대회가 종료된 14시부터 미술공연을 선보여 각종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백제왕궁박물관 누리집 또는 전화(063-859-4636, 4796)로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즐겁게 보내고 어린이들이 익산의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부안 공예주간’ 부안청자와 함께하는 공예여행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공예주간’ 행사를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부안청자박물관 및 내소사, 변산해수욕장, 격포 채석강 4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 공예주간’은 ‘도시-일상-공방(Urban-Life-Craft Studio)’을 슬로건으로 4개의 거점도시(고성, 부안, 진주, 전주)에서 진행된다. 공예문화 거점도시로 선정된 부안은 ‘공예가 있는 풍경(Craft-Scape), 청자와 그 친구들 산, 들, 바다를 품다’라는 사업명으로 천년의 역사를 지닌 부안청자를 핵심으로 부안의 매력적인 장소 4곳에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부안청자박물관’은 부안 공예주간의 웰컴센터로 (한국 전통 다기, 마음을 나누는 그릇 특별전)을 시작으로 청자 모티브의 다양한 굵즈를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상감 기법의 청자 목걸이를 만들어 보는 (청자캠페인) 등이 준비되고 있다.

아름다운 전나무숲길로 유명한 ‘내소사’에서는 (공예 프리마켓)이 펼쳐지는 가운데 공예의 치유성과 어울리는 (힐링사운드 콘서트)와 청자 다관을 활용한 (차명상)이 펼쳐진다.

‘격포 채석강’에서는 서해비대를 관광한 개



양할미에게 소원을 빌어보는 (소망등 달기)와 무형문화재 이종덕선생의 방학 유기로 석양 아래에서 (코리아 싱잉블)을 체험 하게 된다.

마지막 장소인 ‘변산해수욕장’에서는 물길을 따라 떠내려온 유목이나 해양쓰레기, 조개껍데기 등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업사이클 컨셉의 (공예체험마켓)이 펼쳐지고, 일월오봉도를 변산 풍경으로 오버랩시켜 풀어낸 단체인 (공예가 있는 풍경)도 준비되어 있다.

5월 18일~19일, 25일~26일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부안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행사장을 모두 경유하는 셔틀버스가 총 6회 운영된다. 또한 4개소의 행사장에서는 청자 컬러링, 투명 부채를 이용한 청자빛 풍경감각 이벤트 등이 전개되며 3곳 이상의 스탬프를 받은 관람객에게는 공예주간 에코백을 선물로 제공한다.

부안 공예주간 장소상세 프로그램 및 사진 참여, 이벤트 등은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buancraftweek)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인문학 강연 개최

21일·28일·6월 11일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21일·28일·6월 11일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소공연장에서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마루’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 중인 개방형 도서실로, 국민에게 무형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다. 2018년부터 개최해 온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학 강연은 일상 속 친숙한 콘텐츠로서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품격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 강연은 ‘환기(喚起·換氣): 리프레쉬인사이드’라는 주제로 역사와 한복, 예술 분야에서 각각 활약하고 있는 강연자를 초청,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유산 속 무형유산의 가치를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첫 강연은 21일 오후 7시에 배기성 역사강사가 ‘전북 사람들도 몰랐던 진짜 전북 히스토리’라는 주제로 전북지역의 역사적 사실 속 무

형유산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낼 예정이다.

이어 28일 오후 7시에는 황이슬 패션한복디자인어가 ‘한복은 합시다 - 요즘 것들의 한복’을 주제로 전통 한복을 재해석해 창작한 ‘모던한복’에 담긴 철학과 한복을 즐기는 일상 속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6월 11일 오후 7시에는 전북 지역의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이하늘 커뮤니티시네마 무명씨네 이사가 ‘이름 없는 모두의 영화관 무명씨네’를 주제로 영화협동조합인 무명씨네를 설립하게 된 계기부터 무명씨네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연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사전신청은 20일까지 네이버 예약(<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123205?preview=0>) 또는 전화(063-232-0736)를 통해 선착순(회차별 170명)으로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